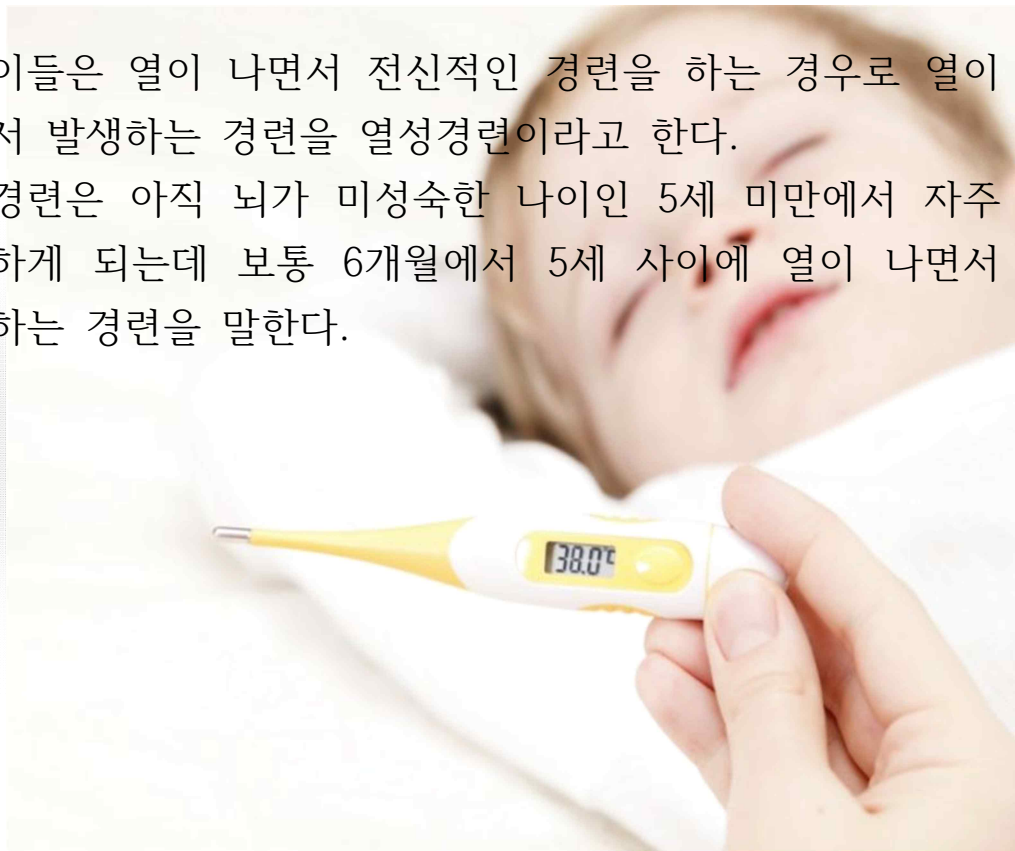


# 열성경련 (febrile convulsion)

## ◆ 열성경련이란?

어린이들은 열이 나면서 전신적인 경련을 하는 경우로 열이 나면서 발생하는 경련을 열성경련이라고 한다.  
열성경련은 아직 뇌가 미성숙한 나이인 5세 미만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열이 나면서 발생하는 경련을 말한다.



## ◆ 증 상

열성 경련은 소아 100명당 5명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보통 전신적인 양상으로 온몸이 경직되고 팔다리 혹은 몸통을 규칙적으로 떠는 움직임과 눈이 위로 돌아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5~10분 이내에 멈춘게 된다.

## ◆ 응급처치

**『부모나 보호자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의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아이가 경련을 하는 동안 다른 주위 물건에 부딪히지 않게 물건을 치워준다.

☞ 경련 중 침 이나 구토물 등이 기도로 들어가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해준 후 호흡을 관찰한다.

☞ 경련 중 불필요한 자극은 하지 말며 경련의 양상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경련 시간을 체크 한다.

☞ 열성경련은 저절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갈 필요는 없지만, 경련이 오래 지속되면(일반적으로 5분) 간질 증첩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19신고 후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하면 된다.

## ◆ 주의사항

- ◆ 의식이 저하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지 않도록 한다.
- ◆ 경련한 아이의 손발을 꼭 잡거나 주무르는 등의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간질 중첩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응급실에 방문한다.

## ◆ 예 후

대부분의 열성 경련환자는 신경학적인 장애 없이 회복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간질로 발전할 확률은 1~3%정도로 100명중에 1~3명 정도라고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적 장애, 학습장애 등의 후유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